번역학연구
2010년 봄 제11권1호

문화재청 홈페이지의 국보 명칭 영문 번역 고찰

최 희 섭
(전주대)

1. 서론

문화재청이 하나의 공공기관이고 공공기관의 번역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로 논의를 시작한다. 한국번역학회의 학술지『번역학연구』에 수록된 공공기관의 번역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논문은 두 편이다. 하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BK 21 통역번역특화분야 사업단에서 이승재 외 7인의 연구자가 연구한「국내 공공기관 번역 현황」이고 다른 하나는 신지선이 한국문학번역원의 연구지원을 받아 연구한「공공기관 번역현황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이다.

전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내에 통역번역 연구소를 설치하기 위한 기초 조사를 목적으로 한 것이고, 후자는 양질의 번역결과물을 양산할 수 있는 번역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제언을 목적으로 하였다. 두 논문은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번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한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이승재 외

www.kci.go.kr

7인의 연구자는 우리나라 번역 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수요를 예측하며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처, 청과 공사, 공단, 국영기업체와 지자체 및 연구기관들, 공익 단체, 협회 등 번역을 실제로 행하고 있거나 관련된 기관 267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였다(58). 신지선은 번역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 기관 중 문화 번역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 기초 예술 번역 기관, 한국학 관련 번역 기관 등 38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번역 현황 조사 설문지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하여 번역 수급 현황, 번역 감수 및 평가 시스템, 번역시 참고 자료 준비 현황, 개선 사항 제안으로 구성하였다(75-76).

이승재 외 7인의 연구자가 밝힌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번역 담당자들의 번역 및 번역사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도 평가
2) 실제 발생하는 번역 수요 및 요율과 번역물 해결 방식 파악
3) 각 방식 별로 그러한 해결 방식을 택한 이유, 만족도, 문제점의 파악
4) 번역물 생산 관리 및 품질 제고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5) 해외 기관 교류 실태
6) 향후 한국외대 통역번역원 전문분야 자문단 참여 가능 인력 파악 등 (59)

이승재 외 7인의 학자들은 공공 부문의 거의 모든 번역이 비전문적인 번역 인력에 의하여 기관 내 혹은 외부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며, 번역물 생산의 전 과정을 총체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고, 번역물 품질관리 시스템을 개발, 도입하여 번역물 품질의 제고를 꾀하여야 한다고 결론짓는다(105-6). 이 논문이 발표된 것이 2001년 12월인데, 이후 거의 7년이 지난 시점인 2007년도에 신지선이 발표한 논문에서도 유사한 결론을 맺고 있으므로 이러한 연구결과가 학문적으로는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현실적으로 수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신지선이 연구결과 제안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질적으로 수준 높은 번역 결과물을 만들어낼 번역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는 번역물이 수용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고 평가할 전문가가 부재하고 인력 및 예산이 부족하다. 셋째 번역을 수주한 번역사가 번역을 의뢰한 공공기관의 특성과 전문적인 주제지식 및 배경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아, 번역결과물에 오역과 부적절한 용

www.kci.go.kr

어 및 표현이 많이 사용되어 있다. 넷째 번역물 내용의 특성으로 인하여 주제 지식이 풍부한 직원과 언어적 측면에서 번역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외국인의 공동 감수가 바람직하다. 다섯째 전문적으로 번역하거나 감수해주는 정부 산하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98).

본고에서 살펴보고자하는 문화재청은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홍보하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이다. 본고는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있는 국보의 명칭을 영어로 어떻게 표기해놓고 있는가를 고찰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문화소적인 요소를 지닌 어휘의 번역에 관한 이론과 기존 연구결과를 살펴본 후에, 문화재청의 홈페이지 실태를 점검하고, 국보의 명칭 영문이 어떻게 표기되어 있는가를 살펴본다. 그리고 결론부분에서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제언을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실태 분석

본 연구는 새로운 번역이론을 제시하거나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소개하는 문화재청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보의 명칭이 번역되어 있는 실태를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정부에서 번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번역가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소적인 요소를 지닌 어휘의 번역이론을 살펴보고 이것이 국보의 명칭 영어 번역에 적용되고 있는가를 점검한다.

2.1. 문화소의 번역이론

뉴마크(Peter Newmark)는 문화를 삶의 방식과 그 표현으로 정의하면서 문화의 범주를 (1) 생태, (2) 음식, 의복, 집과 마을, 수송수단 등의 물질문화, (3) 일과 레저 등의 사회문화, (4) 몸짓과 습관, (5) 조직, 관습, 행동, 과정, 개념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한다(94-95). 이것들은 원천언어와 목표언어 사이에 문화가 중첩되지 않으면 번역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 범주에 속하는 것들을 문화소적인 요소를 지닌 어휘라고 하는데 이 어휘의 번역에서는 남다른 주의가 요구된다. 에익셀라(Aixelá)는 문화소적인 요소를 지닌 어휘를 문화적 특정 항목

www.kci.go.kr

(Culture Specific Items)이라고 명명하고, 이 항목은 원천텍스트에서의 기능과 함축된 의미가 목표텍스트로 번역할 때 번역상의 문제를 지닌 것이라고 하면서 지역에 기반을 둔 기관, 거리, 역사적 인물, 예술작품 등을 예로 든다(57). 이 어휘들은 목표어 문화권에 동등하거나 유사한 어휘가 없기 때문에 번역할 때 어려움을 초래한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소적인 요소를 지닌 어휘를 번역할 때 번역자는 문화 중개자 역할을 하여 원천언어문화와 목표언어문화 사이의 문화적 틈새를 메워 주어야 한다(남원준 152).

문화적 틈새를 메워 주는 사람을 문화적 중재자라고 할 수 있는데, 문화 중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원천언어 문화와 목표언어 문화를 충분히 이해할 뿐만 아니라 최적의 번역전략을 사용하고 고안할 적절한 연구능력도 지니고 있어야 한다(남원준 152). 원천언어 문화와 목표언어 문화를 지식으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인식해야한다. 또한 실제로 번역할 때 어떠한 번역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알고 있어야 한다. 번역전략은 목표독자의 상정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번역전략을 수립할 때 종합적인 사고력과 판단력이 필요하다. 특히 원천언어에 있는 문화소적인 요소를 지닌 어휘가 목표언어에 없을 경우 적절한 어휘를 고안해낼 수 있는 창의력도 필요하다. 문화소적인 요소를 지닌 어휘 중에는 우리나라 사람도 잘 모르는 개념이 포함된 경우가 매우 많은데, 이를 목표언어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문화적인 요소를 지닌 어휘를 남원준은 에익셀라의 의견을 수용하여 문화적 특정항목이라고 명명하고 이를 세분하여 사람, 건물, 조직체 등의 이름인 고유명사, 특정한 문화와 관련된 항목, 특정한 사건이나 사람과 관련된 항목, 관용어구, 무게와 척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남원준 154).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국보의 명칭은 문화적 특정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스넬 혼비(Snell-Hornby)가 이야기하듯이 안내판을 번역하는 목적은 주의를 끌고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제시하는 것이다(19; 남원준 155).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번역가는 목표독자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안내판 중에서도 제목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제목이 주의를 끌지 못할 경우 독자의 관심을 끌지 못할 수 있으며, 본문의 내용과 동떨어진 제목일 경우에는 독자의 실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www.kci.go.kr

어떤 경우이든 번역을 할 때에는 목표독자를 상정하고 그 독자에게 적합한 어휘와 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문화재청 영어 홈페이지의 번역 담당자는 목표독자의 상정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목표독자를 상정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한 번역전략을 수립하지 않았고, 적절한 번역전략을 수립하지 않았으므로 번역의 질을 담보하지 못할 것은 당연하다. 문화재청 홈페이지의 번역 담당자는 번역이 관광산업의 실패와 성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번역전략이나 목표독자에 큰 관심을 갖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번역물을 보는 사람 다시 말하여 번역물의 수용자, 즉 목표독자가 기대하는 바를 충분히 인식하고 번역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Cappelli 11; 남원준 155).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번역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 없었던 것 같다.

김도훈은 「문화소의 부등성을 보상하는 번역전략」에서 구체적인 번역전략으로 상위어 사용전략, 문화대체어 사용 전략, 설명을 덧붙인 차용어 사용 전략, 부연설명 제공 전략, 중립적 어휘 사용 전략 등 다섯 가지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39-46). 문화소에 따라 다섯 가지 전략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번역하면 의미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전략들은 기능 및 효과 면에서 고유한 장·단점이 있으며 두 가지 이상의 전략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문화소적인 요소를 지닌 어휘를 번역하기 위해서 채택할 수 있는 번역전략으로 에익셀라가 제시한 것을 남원준은 다음과 같이 도표화하고 있다(61-65; 남원준 157).

보존 (Consrevation)	반복 (repetition)
	철자 바꾸기 (orthographic adaptation)
	언어학적 번역 (linguistic (non-cultural) translation
	텍스트 밖에 주석붙이기 (extratextual gloss)
	텍스트 안에 주석붙이기 (Intratextual gloss)
대체 (Substitution)	동의어 겹쳐쓰기 (synonymy)
	제한적 보편화 (limited universalization)
	절대적 보편화 (Absolute universalization)
	이입 (naturalization)
	생략 (deletion)
	자율적 창조 (autonomous creation)

www.kci.go.kr

에익셀라는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다양한 언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의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 특정한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 이 모든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틴어 계통의 언어를 라틴어 계통의 언어로 번역할 때 반복이라는 방식으로 그 표기법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이를 우리나라 말을 영어로 번역할 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은 우랄알타이어 계통에 속하기 때문이다.

라틴어 계통의 언어와 우랄알타이 계통의 언어는 구문의 형식이나 배열 순서가 다를 뿐만 아니라 문자까지도 다르다. 예를 들어 영어와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은 구문이 유사하며 어휘의 배열 순서도 유사하다. 그렇지만 우랄알타이 계통의 언어는 전혀 다른 구문형식과 배열순서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한자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글자가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될 수 있다. 라틴어 계통의 언어는 로마자를 사용하지만, 우랄알타이 계통의 언어는 로마자와는 전혀 다른 문자를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에익셀라가 예시한 반복의 방법을 우리나라 말을 영어로 옮길 때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우리나라 글자를 영어텍스트에 그대로 써놓으면 외국인들은 그것을 하나의 기호로 보기만 할뿐 글자로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반복의 방법을 우리나라 말과 영어 사이의 번역에 적용시키면 우리나라 말을 발음하는 대로 로마자로 표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학자들의 번역이론을 우리나라 말과 영어사이의 번역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우리나라 말과 영어의 번역 사이에는 다른 번역이론이 수립되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 문화소의 번역이론에 관한 확고한 이론이 없으므로 외국학자들의 의견을 원용하는 수밖에 없다.

2.2. 문화재청 홈페이지 실태

문화재청은 방대한 인력과 조직을 갖고 우리나라의 문화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국가기관이다. ‘Home > 문화재청 소개 > 일반현황 > 설립목적’에 나와 있는 문화재청의 설립목적은 “문화 유산의 보존과 가치창출로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고 부차적인 목적과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이 밝혀져 있다.

www.kci.go.kr

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발전으로 세계일류 문화국가 실현
1. 문화재 정책 및 조사연구 품질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의 기반을 확충
2. 문화재의 사회, 역사, 경제적 가치증진을 위해 문화재 보존관리의 품질을 제고
3.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재의 가치를 국내 및 국제 사회에 확산
(http://...mc=KS_07_02_02)

문화재청은 세 번째 목적에 따라 문화재를 소개하고 이를 영어로 번역하여 국제 사회에 확산시키고 있다.

2009년 12월 30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보물 제138호 '봉암사 지증대사 적조탑비(鳳巖寺 智證大師 寂照塔碑)'를 국보 제315호로 승격 지정했다(http://...=1&flReply=0).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국보는 315개로 짐작되는데, 문화재청의 'Home > 문화유산지식 > 문화재검색 > 문화재통계'의 지정문화재 총괄 현황에는 2009년 12월 31일 현재 313개의 국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http://...mc=KS_01_02_06).

문화재청의 'Home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경주 남산 칠불암 마애석불', '무위사 극락전 아미타후불벽화', '송광사 화엄전 화엄탱' 등 3건이 2009년 6월 25일에 국보로 지정 예고되어 있고, '봉암사 지증대사 적조탑비' 가 2009년 11월 4일 지정예고 되어 있다(http://...mc=KS_05_03). 2009년 6월 30일 '안동봉정사대웅전'이 국보 311호로 지정되었고, 9월 2일에 '경주 남산 칠불암 마애불상군', '강진 무위사 극락전 아미타여래삼존벽화', '순천 송광사 화엄경변상도' 가 각각 국보 312호, 313호 314호로 지정되었다. 그러므로 국보의 숫자가 2009년 12월 31일 현재 315개일 것인데, 통계에는 313개로 되어 있으므로 통계가 잘못된 것으로 여겨진다.

문화재청의 'Home > 문화유산지식 > 문화재검색'에는 국보의 숫자가 315개로 되어 있다(http://...Detail_Result.jsp). 보도자료에 315개로 되어 있고, 문화재검색에 315개로 되어 있으므로 문화재통계에 나타난 자료가 최근의 변화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옛 자료라고 짐작된다. 본고는 문화재청의 홈페이지에 관한 연구가 아니라 번역에 관한 것이므로 영어 홈페이지를 살펴보았다.

문화재청의 영어 홈페이지에 밝혀져 있는 'Vision & Mission'은 다음과 같다.

www.kci.go.kr

Responsibilities
- Preserve and maintain cultural heritage in original condition.
- Cultivate tourism resources through promoting value of cultural properties.
- Enlarge people's enjoyment about cultural heritage and make public Korean traditional culture in the world. (http://english.cha.go.kr/)

"설립목적"을 "Responsibilities"라고 번역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말로는 상당히 장황하게 되어 있는 세 가지 구체적인 목적도 매우 간략하게 번역되어 있다. 이의 번역에 대해서도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현재는 국보의 숫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논의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국보(National Treasures)를 검색하면 310호 'Large Porcelain Jar'(백자대호(白磁大壺))가 마지막에 등장한다. 2007년 12월 17일에 국보로 지정된 '백자대호'에 대한 설명이 마지막으로 나와 있고, 그 이후 지정된 '안동봉정사대웅전', '경주 남산 칠불암 마애불상군', '강진 무위사 극락전 아미타여래삼존벽화', '순천 송광사 화엄경변상도', '봉암사 지증대사 적조탑비' 등 다섯 개의 영어 번역은 되어 있지 않다. '안동봉정사대웅전'이 2009년 6월 30일에 국보로 지정되었으므로, 적어도 그 이후에 영어 홈페이지를 관리한 적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문화재의 가치를 국내 및 국제 사회에 확산"한다는 문화재청의 설립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를 영어로 번역한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린다"(make public Korean traditional culture in the world)는 목적에도 매우 소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문화재청에서 번역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문화재청이 우리나라의 가장 귀중한 문화재인 국보의 소개와 홍보에 이러한 정도의 힘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정부에서 번역 내지는 번역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적어도 번역을 주로 담당하고, 영어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앙부처에서 전문 번역가를 고용하지 않고 있으며, 번역은 외국어를 하는 사람 아무나 하는 일이거나 외주를 주면 되는 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www.kci.go.kr

2.3. 국보의 명칭 번역

문화재청의 홈페이지 'Home > 문화유산지식 > 문화재검색'으로 들어가서 국보를 검색하면 국보 제 1호 '서울숭례문'에서부터 315호 '봉암사 지증대사 적조탑비'까지 모든 국보의 명칭이 나온다. 이 중에서 312호 '경주 남산 칠불암 마애불상군'과 313호 '강진 무위사 극락전 아미타여래삼존벽화', 314호 '순천 송광사 화엄경변상도', 그리고 위에서 이야기한 315호 등 4개를 제외하고는 띄어쓰기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한글 이름에 이어 괄호 속에 한자를 병기하여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한글과 한자 모두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다.

이름이 가장 긴 국보는 제 212호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권1-10>'으로 문장부호와 아라비아 숫자까지 합하여 총 27자로 되어 있는데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다. 몇 권이라는 부가적인 이름만 없는 동일한 불교경전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이 국보 제 206-3호이다. 한자로 되어 있는 이름(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을 한글로 쓴 것이라서 의미를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띄어쓰기를 하여 '대불정 여래밀인 수증료의 제보살 만행 수능엄경'이라고 써놓으면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것보다 쉽게 이해될 것이다.

이를 영어로 번역한 것도 마찬가지로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다. 음차번역을 하여 하나의 단어로 써놓았기 때문에 의미파악은 고사하고 읽기조차 쉽지 않다. 제 212호와 제 206-3호의 영어 이름은 동일하게 'Daebuljeongyeoraemirinsujeungyouijebosalmanhaengsuneungeomgyeong'라고 되어 있다. 제 212호의 번역에서 '<권1-10>'이 생략되어 있다. 이 이름이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보통 정도의 실력을 지닌 외국인이 한번 보고 쉽게 읽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2000년 7월 19일에 공포한 국립국어연구원의『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제 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 1항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http://. . ./rule06.jsp)고 밝히고 있다. 이는 표음법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천명한 것으로 다른 말로 하면 음차번역을 하라는 말이다. 음차번역을 해놓았을 때 길이가 길지 않은 단어일 경우에는 무리하지 않고 읽을 수 있지만, 이와 같이 길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읽기가 쉽지 않

www.kci.go.kr

다. 한글 이름과 마찬가지로 띄어쓰기를 하여 'Daebuljeong yeoraemirin sujeungyoui jebosal manhaeng suneungeomgyeong'이라고 써놓으면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것보다 쉽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번역자는 외국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괄호 속에 주석을 붙여 놓고 있다. 제 212호와 제 206-3호의 주석은 'Suramagma sutra'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영한 사전이나 한영 사전에 이러한 단어는 없다. 서광이 편찬한『한영불교사전』에는 능엄경이 'Shurangama Sutra(Suramgama sutra)'라고 되어 있다(55). 그렇기 때문에 번역자는 불교사전을 참고하여 번역하면서 철자를 틀리게 옮긴 것으로 보인다.

번역자는 주석을 붙이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주석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괄호 속에 주석을 붙이는 것은 삽입의 일종으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휘의 뜻풀이나 맥락 등을 덧붙이는 것이다(최희섭 72).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삽입하는 것이므로 독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어휘와 구문을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인 한영사전이나 영한사전 나아가 인터넷 사전에도 없고 불교사전에만 있는 단어이므로 일반인이 이 단어를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 주석은 독자의 이해에 기여하지 못한다.

여기에서 번역자는 부연설명 전략을 사용하여 문화소적인 요소를 지닌 어휘를 번역하고 있지만, 목표독자를 고려하지 않은 나머지 지극히 난해한 어휘를 사용하였다. 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보를 획득하는 사람이 누구일 것인지를 고려하고 번역하였다면 이와 같이 난해한 어휘를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번역을 할 때에는 목표독자를 먼저 상정하고 번역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이 홈페이지의 번역자는 목표독자를 생각하지 않았고 따라서 번역전략을 수립하지도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정일영은「웹사이트의 일본어역 관광안내문 오류에 관한 연구-고궁을 중심으로」에서 관광객에게 관광안내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로 인쇄매체, 표지매체, 인터넷 매체를 들고, 이 중에서 현대인이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관광정보입수를 위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은 인터넷 매체인 웹사이트의 관광안내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일본인 관광객이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입수한 경우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증거로 제시한다(73).

www.kci.go.kr

이를 볼 때 문화재청의 홈페이지의 주요 독자는 영어로 정보를 획득하려는 일반적인 관광객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관광객은 문화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않았고, 전문용어를 알지 못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관광객을 목표독자로 상정하면 어떠한 번역전략을 수립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부연설명 전략을 채택하기로 결정하면 목표독자를 고려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어휘와 구문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능엄경을 'A Buddhist Scripture called Shurangama sutra'라고 번역하면 일반적인 독자도 이것이 일종의 불교 경전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름이 두 번째로 긴 국보는 제 269호 '초조본불설최상근본대락금강불공삼매대교왕경<권제6>'으로 문장부호와 아라비아 숫자까지 합하여 26자로 되어 있다. 몇 권이라는 부가적인 명칭을 생각하지 않으면 21자로 앞에서 다룬 제 212호보다 한 글자가 더 많다. 한글 이름에 덧붙여 한자로 '初雕本佛說最上根本大樂金剛不空三昧大敎王經<卷第六>'라고 삽입되어 있지만, 이 역시 보통 정도의 한자실력으로는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 '초조본 불설 최상근본 대락금강 불공삼매 대교왕경 <권제6>'이라고 띄어쓰기를 해놓았으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영어로 번역한 것도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서 다음과 같이 매우 길게 되어 있다. Chojobonbulseolchoesanggeunbondaerakgeumgangbulgongsammae-daegyowanggyeong 글자 수를 세어보면 정확히 73자이다. 일반적인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가장 긴 영어 단어는 병리학에서 사용하는 "진폐증"이라는 의미의 'pneumonoultramicroscopicsilicovolcanoconiosis'로 45자이다. 그렇지만 "진폐증"을 가리킬 때 실제로는 'pheumoconiosis'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한다. 두 번째로 긴 단어는 "(재물 등에 대한)경시, 천하게 여김"이라는 의미의 'floccinaucinihilipilification'으로 29자이다. 이 두 단어는 실제로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장난스럽게 사용된다. 그러므로 국보를 번역하면서 가장 긴 영어 단어를 우리나라 문화재청에서 만들어낸 것이다.

이 이름에 덧붙인 설명은 'Maha sutra part 6'라고 되어 있다. 이 설명도 잘못되어 있다. 'maha'라는 단어는 불교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로 '크다' 또는 '큰'이라는 의미를 지닌 어휘로 경의 이름이 아니다. 여기에서는 '교왕경' 앞에 붙은 접두사로 '큰 교왕경'이라는 의미이다. 또한 '제 6권'이므로 'part 6'가 아

www.kci.go.kr

니라 ‘volume 6’라고 해야 한다. ‘Maha’라는 단어도 불교에서는 접두사로 많이 사용되는 어휘이지만 일반적인 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은 용어이다. 영어권의 사람들에게 불교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영어권 독자는 그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이와 같이 설명이 잘못된 경우는 매우 많다. 국보 308호를 살펴보도록 한다. 한글 제목은 ‘대흥사북미륵암마애여래좌상’이라고 띄어쓰기가 되어있지 않아 그 의미 파악이 쉽지 않다. 띄어쓰기를 하여 ‘대흥사 북미륵암 마애 여래 좌상’이라고 하면 그 의미가 보다 쉽게 파악될 것이다. 띄어쓰기를 바르게 해놓으면 대흥사에 속해 있는 사찰 중의 하나인 북미륵암 경내에 있는 바위에 새긴 여래좌상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를 영어로 번역한 것은 ‘Daeheungsabungmireugammaaeyeoraejwasang’이라고 되어 있는데 표음법에 따라 음차번역을 해놓은 것이므로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다.

부연설명한 제목은 ‘North rock-cut seated Maitreya buddha of Daeheungsa Temple’이라고 되어 있다. 이 설명은 바르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 이 영어를 우리나라 말로 다시 역번역하면 “북쪽 바위를 조각한 대흥사의 앉은 미륵불”이 된다. 북미륵암이 사라지고 북쪽 바위가 되었으며, 석가여래의 좌상이 미륵불의 좌상으로 되었다. 또한 북미륵암의 마애불이 대흥사의 미륵불로 잘못 번역되었다. ‘대흥사 북미륵암 마애 여래 좌상’을 영어로 설명하면 “Seated Buddha’s Sculpture in the Rock of Bukmireukam Hermitage in Daeheungsa Temple”이다.

국보 1호 ‘서울숭례문(서울崇禮門)’, 국보 제 309호, 제 310호 ‘백자대호(白磁大壺)’의 번역 이외에는 모두 음차번역하였으며 하나의 단어로 표기하고 있다. 국보 1호는 ‘Seoul Sungnyemun (South Gate of Seoul)’이라고 되어 있어 표음법에 따라 음차번역하고 있으며 두 단어로 표기하고 있다. 국보 309호, 310호 ‘백자대호’는 ‘Large Porcelain Jar’라고 번역되어 있다. 이는‘백자대호’를 문화소로 보지 않고 의미번역을 한 것이다. 그렇지만 바르게 번역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porcelain’은 ‘자기’라는 의미이므로 ‘백자’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백자’를 바르게 번역하면 ‘white porcelain’이라고 해야 한다. 다른 국보의 이름은 음차번역을 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된다.

삽입되어 있는 부연설명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몇 개만 더 살펴보도

www.kci.go.kr

록 한다. 국보 제97호 '청자음각연화당초문매병'과 국보 제114호 '청자상감모란국화문과형병'의 설명을 비교하여 살펴본다. 국보 제 97호는 'Celadon vase incised with lotus and arabesque designs' 제 114호는 'Celadon bottle in the shape of a muskmelon with inlaid peony and chrysanthemum designs'이라고 되어 있다. 두 국보 모두 청자로 된 병인데, 하나는 'Celadon vase'라고 하였고 다른 하나는 'Celadon bottle'이라고 하였다. 'Vase'와 'bottle'은 용도로 구별하는데 이 경우에는 물항아리가 아니라 꽃을 꽂아두는 화병의 역할이 어울리는 병이기 때문에 'Celadon vase'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휘 선택에서 이와 같이 잘못된 점이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문법적인 요소도 잘못되어 있다. 제 114호는 모란과 국화 문양이 상감되어 있는 머스크 멜론 모양의 꽃병이므로 'Muskmelon-shape celadon vase with peony and chrysanthemum design inlay'라고 하는 것이 바른 번역이다.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또 다른 유사한 국보 두 점의 설명을 살펴본다. 제 123호 '익산왕궁리오층석탑내발견유물'과 국보 제 126호 '불국사삼층석탑내발견유물'은 발견된 장소가 다르지만 모두 석탑 내에서 발견된 유물이라는 점이 공통점이다. 이의 번역은 각각 'Relics found from the five storied stone pagoda in Wanggung-ri,Iksan'과 'Relics found inside three storied pagoda of Bulguksa Temple'이라고 되어 있다. 둘 다 석탑 내에서 발견된 유물인데, 하나는 'found from the five storied stone pagoda'라고 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found inside three storied pagoda'라고 되어 있다.

전치사가 하나는 'from'이고 다른 하나는 'inside'로 되어 있고 제 123호에는 정관사가 사용되어 있는데 반하여 제 126호에는 정관사가 빠져 있다. 또 제 123호는 탑의 재료가 돌이라는 것이 밝혀져 있는데 반하여 제 126호에는 탑의 재료가 생략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제 123호의 번역에서는 전치사가 잘못되어 있고, 제 126호의 번역에는 정관사가 생략된 것과 재료가 빠진 것이 잘못되어 있다. 바르게 번역하면 제 123호는 'Relics found inside the five storied stone pagoda in Wanggung-ri, Iksan', 제 126호는 'Relics found inside the three storied stone pagoda of Bulguksa Temple'이라고 된다.

이번에는 불교 경전을 비교해본다. 국보 제 196호 '신라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과 국보 제 235호 '감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보현행원품'의 번역은 각각

www.kci.go.kr

‘Avatamsaka sutra in ink on white paper’과 ‘Avatamsaka sutra in gold on indigo paper’라고 되어 있다. 국보 제 196호는 화엄경이고, 제 235호는 화엄경의 일부인 보현행원품이다. 그런데 번역은 모두 ‘Avatamsaka sutra’라고 되어 있다. 앞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불교 경전 이름은 대부분 일반적인 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서양인들은 ‘Avatamsaka sutra’가 무슨 경전인지 알 수 없을 것이다.

앞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A Buddhist scripture called Avamtamsaka sutra’라고 해야 영어권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현행원품’은 화엄경의 일부로 정식으로 번역하면 ‘the vow of practice of Samantabhadra chapter in Avamtamsaka sutra’이다. 그렇지만 이 경우 영어권 독자들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A Buddhist scripture called the vow of practice of Samantabhadra chapter of Avamtamsaka sutra’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제 196호는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것이 중요한데, 번역에는 이것이 빠져 있다. 그러므로 ‘the Silla Dynasty’를 붙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모두 보충하여 번역하면 ‘A Buddhist scripture called Avamtamsaka sutra written in ink on white paper of the Silla Dynsaty’가 된다. 제 235호를 바르게 번역하면 ‘A Buddhist scripture called the vow of practice of Samantabhadra chapter of Avamtamsaka sutra written in gold on indigo paper’가 된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본다. 국보 제58호 ‘장곡사철조약사여래좌상부석조대좌’는 ‘Seated iron bhaisajyaguru buddha statue at Janggoksa Temple’이라고 되어 있어 ‘석조대좌’의 번역이 누락되어 있다. ‘대좌’는 ‘좌대’와 마찬가지로 불상이 놓여 있는 자리를 가리킨다. 여기에서는 불상이 놓여있는 자리가 돌로 만들어진 대좌이다. 그러므로 이를 번역하면 ‘stone terrace seat’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를 바르게 번역하면 ‘Seated iron bhaisajyaguru buddha statue and its stone terrace seat at Janggoksa Temple’이 된다.

국보 제 282호 ‘흑석사목조아미타불좌상병복장유물’도 ‘Seated wooden amitabha buddha statue and accompanying relics at Heukseoksa Temple’이라고 잘못 번역되어 있다. ‘목조 아미타불 좌상’과 ‘복장유물’이 국보 제 282호이다. ‘복장유물’이란 뱃속에 들어 있는 유물이다. 일반적으로 불상은 뱃속이 빈 공간이고 이곳에 붓다의 사리나 각종 경전 또는 귀중품을 넣어둔다. ‘Accompanying

www.kci.go.kr

relics'은 '복장유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부수적인 유물이라는 의미이므로 제대로 된 번역이 아니다. '복장유물'은 'the relics inside the statue'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바르게 번역하면 'Seated wooden amitabha buddha statue and the relics inside it at Heukseoksa Temple'이 된다.

국보가 제 315호까지 지정되어 있으나 그 숫자는 412점에 이르는 국보의 이름 중에서 십여 개만 살펴보고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논의한 십여 개는 무작위로 선정한 것이다. 그 이름의 길이가 긴 것을 위주로 선정하였는데, 오류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국보 제 309호, 제 310호 '백자대호'와 같이 길이가 길지 않은 것도 오류가 있었다. 그러므로 거의 모든 이름의 번역이 잘못되었다고 결론지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3. 결론 및 제언

정일영은 일본어 관광안내문의 번역 오류는 일본인 관광객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줄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이미지 손상과 더 나아가 관광객 유치, 관광산업의 선진화에 커다란 장애가 된다고 하였다. 보다 나은 일본어 관광 안내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어민의 철저한 감수 못지않게, 우리의 전통문화와 역사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번역가의 양성과 전통문화 및 역사관련 어휘에 대한 일관성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91-2).

정일영이 제언하는 내용은 영어 안내판에도 적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관광안내판을 영어로 표기할 때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1. 모든 한글명칭을 관광안내표지판에서 외국어로 표기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전제는 외국어표기의 주 대상이 외국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어표기에 있어서 한국인의 표기 방식을 주장하기 보다는 외국인 입장에서 적합한 방식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현대적인 외국어로 표기하고, 외국인이 이해하기 쉽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용례집』 1)

www.kci.go.kr

문화재청의 홈페이지에서 영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외국에 알려 관광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관광공사의 제안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국보의 명칭 영어 번역을 보면 이러한 제안을 전혀 수용하지 않았거나, 이러한 원칙이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표음법에 따라 음차번역을 하였으나 그 이름이 매우 길고 복잡하여 읽기가 쉽지 않은 것은 외국인의 입장에서 적합한 방식을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한글 명칭과 영어 명칭 모두에서 하나의 단어로 취급하여 띄어쓰기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띄어쓰기만 해도 의미파악이 보다 쉬워질 것이다. 국보의 명칭은 거의 대부분이 문화소적인 요소를 지닌 어휘이므로 음차번역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명칭이 너무 길어서 읽기에 불편하다면 띄어쓰기와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명칭의 번역에 덧붙여 그 의미를 설명하는 주석을 괄호 속에 병기하고 있는데, 설명이 바르게 되어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 일반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도 않은 지나치게 전문적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은 목표독자가 일반적인 외국인이라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목표독자가 일반인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적어도 일반적인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어휘를 사용하여 설명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구문이 사용된 경우도 많이 있었다. 이는 번역을 한 후에 감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한글을 모르는 영어 원어민이라도 문법적인 오류는 충분이 지적할 수 있고 수정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구문상의 오류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아 원어민에 의한 감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원어민 감수자가 꼼꼼하게 감수하면 문법적인 오류가 있는 문장은 있을 수 없고, 또 지나치게 전문적인 용어의 사용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감수자가 생각하기에 일반적인 원어민이 의미를 이해하기에 어려울 것으로 여겨지는 어휘는 설명을 하거나 다른 어휘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의미가 왜곡된 번역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점이다. 국보의 명칭이 한자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깊지 않은 사람은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경우에

www.kci.go.kr

번역자는 문화재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번역작업에 임해야 했을 것이다. 의미가 왜곡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아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를 소개하는 안내판이 나라의 얼굴임을 인식한다면 이의 번역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가적인 사업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내판의 번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한영번역가가 아니라 문화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번역가가 필요하다(박순봉, 최희섭 114). 문화재의 번역은 일반 문서 번역과는 달리 보다 전문성이 요구된다. 문화재의 번역 이론이나 전략이 수립되거나 연구된 바가 적다. 따라서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의 번역은 그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충분히 갖춘 번역 전문가가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성기운, 최희섭 103). 문화재의 관리와 보존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청에서 이러한 번역전문가를 채용하여 국보와 보물 및 기타 문화재의 안내판 번역을 담당하도록 하면 번역상의 오류로 인해 국가의 품격이 깎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요약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면서 본고를 마친다. 첫째 문화재의 번역은 문화재 전문가와 번역가가 공동으로 번역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영어 원어민의 감수를 받아 어휘와 구문을 일반 관광객의 수준에 맞추어야 한다. 셋째 문화재의 번역이론을 연구하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넷째 번역전문가를 채용하여 상시 번역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도훈 (2006)「문화소의 부등성 보상을 위한 번역전략」,『번역학연구』 7(2): 31-51.

박순봉, 최희섭 (2009)「중원 고구려비 영문안내판의 문법적 오류」,『번역학연구』 10(3): 99-119.

서광 편 (2003)『한영불교사전』, 서울: 불광출판부.

신지선 (2007)「공공기관 번역현황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번역학연구』 8(2): 75-101.

www.kci.go.kr

이승재, 성초림, 이계연, 이향, 김영진, 장현주, 이상원, 조상은 (2001)「국내 공공기관의 번역 현황」,『번역학연구』2(2): 57-107.

정일영 (2003)「웹사이트 일본어역 관광안내문 오류에 관한 연구: 고궁을 중심으로」,『번역학연구』4(1): 73-95.

최희섭 (2007)『번역 첫걸음 내딛기』, 서울: 도서출판 동인.

성기운, 최희섭 (2009)「국보 304호 '여수 진남관' 안내판의 번역오류」,『통번역학연구』31(1): 87-106.

한국관광공사 (2007)『2007 외국어 관광안내표기 용례집』.

Aixelá, Javier Franco (1996) 'Culture-specific Items in Translation', in Román Álvarez and María del Carmen-África Vidal (eds) *Translation, Power, Subversion*,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52-78.

Cappelli, Gloria (forthcoming) 'The Translation of Tourism-related Websites and Localization: Problems and Perspectives', in Annalisa Baicchi. ed. *Voices on Translation*, RILA Rassegna Italiana di Linguistica Applicata, Roma: Bulzoni Editore.

Nam, Won Jun (2008) 'How Students Translate Culture-specific Items: An Analysis of Student Translations & Suggestions for Improvement',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9(3): 151-75.

Newmark, Peter (1988) *A Textbook of Translation*, New York: Prentice Hall.

Snell-Hornby, Mary (1999) 'The 'Ultimate Comfort': Word, Text and the Translation of Tourist Brochures', in Gunilla Anderman & Margaret Rogers (eds) *Word, Text, Translation: Liber Amicorum for Peter Newmark*,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95-103.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2008.7.9) http://www.korean.go.kr/06_new/rule/rule06.jsp

문화재청 Home > 문화재청 소개 > 일반현황 > 설립목적 (2010.1.14) http://www.cha.go.kr/korea/introduce/foundation.jsp?mc=KS_07_02_02

문화재청 Home > 보도자료 (2010.1.14) http://cha.korea.kr/gonews/branch.do?act=detailView&dataId=155417017&sectionId=b_sec_1&type=news&currPage=1&flComment=1&flReply=0

문화재청 Home > 문화유산지식 > 문화재검색 > 문화재통계 (2010.1.14)

www.kci.go.kr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statistics.jsp?mc=KS_01_02_06
문화재청 Home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 (2010.1.14)
http://www.cha.go.kr/korea/news/nationList.action?mc=KS_05_03
문화재청 Home > 문화유산지식 > 문화재검색 (2010.1.14.)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Detail_Result.jsp
문화재청 영어 홈페이지 (2010.1.14)
http://english.cha.go.kr/
문화재청 문화재종류 (2010.1.14)
http://www.cha.go.kr/korea/heritage/knowledge/kind_01.jsp?mc=KS_01_01_02

www.kci.go.kr

[Abstract]

A Survey of the Translation of the Titles of the National Treasures in the Homepage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Choi, Hie Sup
(Jeonju University)

As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CHAK) is a government organization, this paper begins with the examination of the papers which dealt with the translation situation of the public organizations. The examination of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homepage of the CHAK shows that they are not paying a proper attention to the management of it.

Because the method of translating the vocabulary which contains cultural elements, that is culture specific items in Aixelá,'s words, is not yet studied systematically and there is not an authoritative translation strategy, it is difficult to decide the translation method of the titles of the national treasures. In the homepage of the CHAK, the titles of the national treasures are translated according to the rule of phonetic representation and footnotes are given in parenthesis. When the footnotes of the titles of the national treasures are examined, many errors are discovered in the vocabulary, grammatical structure, and the contents. It seems that because the titles themselves are difficult to understand and very long, errors were easily made.

In conclusion, I suggest four things. First, translating cultural properties, the translators should work together with cultural properties specialists. Second, before the translation is publicized, the draft should be supervised by English native speakers. The supervisors should review the draft and correct grammatical errors and suggest vocabulary which average English speakers can understand. Third, they should develop a system to study the translation

www.kci.go.kr

theories of cultural properties in universities and other institutions. Fourth, such public organizations as the CHAK should hire competent translators and make them study and translate the cultural properties.

▸ Key Words: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national treasure, The Rule of Romanization of the Korean Language, the rule of phonetic representation, translation strategy

최 희 섭
전주대학교 인문대학 영미언어문화전공 교수
choihiesup@hanmail.net
관심분야: 번역, 영미문화, 동서비교문학, 영미시

논문투고일: 2010년 1월 25일
심사완료일: 2010년 3월 02일
게재확정일: 2010년 3월 15일

www.kci.go.kr